

[화제의 인물]

보건관리자, 중간관리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다!!



송 근 희 과 장 / (주) 인터엠 보건관리자

“이렇게 총체적이고 다양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모든 보건관리자들도 이분과 같이 역동적인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지난 7월7일 산업안전보건주간에 맞춰 한국산업간호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산업 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송근희 과장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 남긴 말씀이다. 송근희 과장은 그저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하였다.

송근희 과장은 흔히 보건관리자에게 통칭하는 ‘선생님’으로 불리기를 거부하고, 총무과 과장으로 당당히 ‘과장님’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건강관리실에서의 소극적인 보건관리자 역할보다는 한 사업장의 중심에 서서 총체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함께하는 보건관리자가 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인터엠은 28년의 역사 속에서 음향과 영상기기 업계를 선도하며 음향·영상·통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세계 일류를 향해 앞서나가는 사업장이다. “사람, 기술 그리고 미래”라는 사훈으로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며, 환경오염 예방·환경안전사고 예방·에너지 절감 등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송근희 과장이 이 사업장에 1992년 입사하여 사원 보건관리자로 시작하여 총무과 과장으로 자리를 굳히는데 부단한 노력과,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회사임직원과,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선을 다하자, 나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송근희 과장은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다. 근로자 건강 상담 뿐만 아니라 성폭력예방상담·고충 처리 상담

까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담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 처방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사, 전문가로서의 산업보건관리를 위해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송근희 과장은 ‘보건관리자인 산업 간호사는 경영주부터 근로자까지 모두가 고객이므로 안전 보건 분야의 총체적인 관리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응급상황에서는 응급구조요원으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근로자의 유해요인노출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이상자를 점검하며 직업병 감시활동뿐 아니라,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자의 모든 건강상태를 파악하며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하여 작업장 조건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스트레칭, 운동시설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작업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작업환경측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며, 유해물질을 확인 관리, 보호구 관리, 작업방법 개선지도 뿐 아니라 국소배기시설 등 설비 유지관리 등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보건관리자로서 연간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주와 각부서 팀장, 안전·방화·설비관리자, 근로자대표, 공정 라인의 안전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송근희 과장은 중간관리자로서 그리고 보건관리자로서 근로자와 관리자와의 중재자 역할을 하다 보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근로자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 항상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보건관리자야말로 근로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가장 많이 받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그러므로 산업 간호사는 가장 먼저 근로자들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근로자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단지 간호사로서의 역할만을 생각하는 관리자들의 편견을 깨고 보건관리뿐 아니라 보건관리와 안전관리 분야가 겹치는 부분까지 과감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무행정 업무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여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한다고 한다.

50을 훌쩍 넘겨 ‘그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을 듣지만 송근희 과장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18년의 베테랑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사업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업 간호사에게 “혼자 외롭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관리자들이 귀중한 자원이니 좋은 관계를 형성하라”고 힘주어 조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표하여 스스로의 점검과 자성의 계기로 삼으라고 권유해본다.

영원히 열정이 식지 않을 송근희 과장에게 완전한 산업전문간호사의 표상으로 오랫동안 산업 간호사의 귀감이 되기를 기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낸다.

